

Dubai유, 35.29달러로 하락

차익실현 매출 증가 ... WTI·Brent유도 2일째 하향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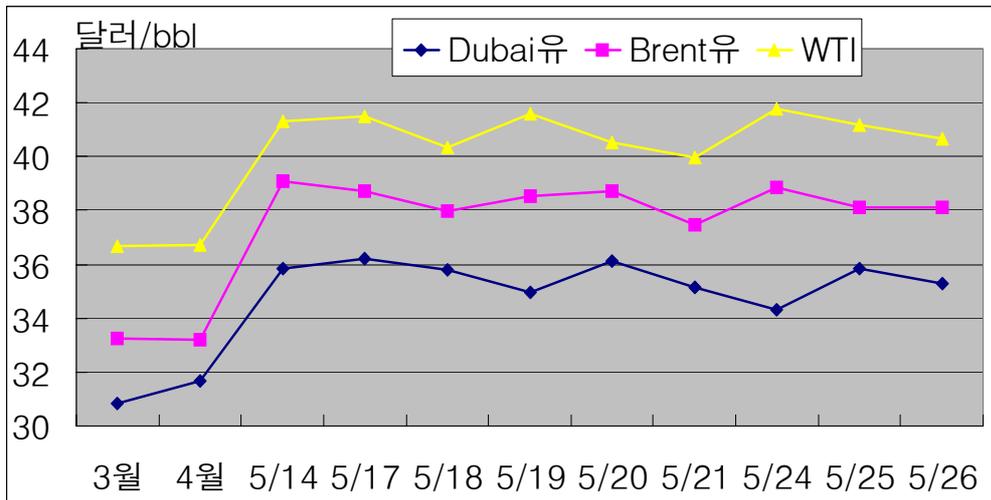
국제유가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출의 출회로 2일째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26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0.53달러 떨어진 배럴당 35.29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40.64달러로 0.51달러 내려 41달러 선이 붕괴됐고 북해산 Brent유는 가격변동 없이 38.12달러에 장을 마쳤다.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7월물 가격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는 각각 0.44달러, 0.36달러 빠진 40.70달러, 37.0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주간 석유 재고 조사결과 휘발유 재고가 전주대비 70만배럴 줄어들고 재고량도 작년 동기보다 500만배럴, 5년 평균치보다 970만배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출이 쏟아지면서 국제유가가 2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05/28>